

# 제주도 마을의 돌문화 요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ultural Elements of Stone to Village in Jeju

김형남\*

Kim, Hyung-Nam

### Abstract

Coastal village and Inland village was village in jeju. This study was cultural elements of stone to village in jeju. Memorial Stone and Stone Monument Street, Shrine, An altar of sarificial site for village tutelary spirits, Bangsatap(pagoda), 25 Bongsu(25 beacon fire stations) and 38 Yeondaec(38 signaling sites), Hwanhaejangseong Fortress, Grave wall and Horse pasture walls were included in elements of history and culture to village in jeju. An altar of sarificial rite for village tutelary spirits was generally on the a hill near a village, built of Stone wall. Bangsatap(pagoda) was the kind and the size of stone to a location, that expresses the form and the scale. the form of grave wall was the oval or the rectangle, the latter was frequent. Thatched houses in jeju and facilities in a house, Stone wall, Tongsi(pigsty), Paeng namu and A heights of stone, Spring water and Water collected in a depression, Stone Weir, Horse mill and Dodaebul(Old Lighthouse) were included in elements of life and culture to village in jeju. Stone wall has the multiplicity of the size and the building method in the use, the function and the region. The form of Stone weir was the rectangular figure or the curvilinear figure, the section of that was the right triangle or the rectangular form.

키워드 : 신당, 방사탑(답과 거옥대), 돌담, 원담(개), 연자매(물방아), 도대불

Keywords : Shrine, Bangsatap(pagoda), Stone wall, Stone weir, Horse mill, Dodaebul(Old Lighthouse)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까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건조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건설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유산의 파괴는 기존의 질서를 어기는 행위이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개발로 인해 역사적 문화유산이 점점 파괴되고 있다.<sup>1)</sup>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가치를 경제적인 척도로만 비교하려고 한다. 문화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도 없지만 환산해서도 안된다. 이와 같이 역사적 문화유산이 개발이나 환경변화로 또는 인위적인 훼손행위로 인해 원래의 가치가 사라져 버릴 때 역사의식은 함께 소멸되는 것이다.<sup>2)</sup>

제주도는 예로부터 돌, 바람, 여자가 많은 삼다의 섬이라고 하였으며, 그러한 세 가지의 요소가 제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 돌 관련 문화는 제주도의 환경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지역

이나 마을 별 역사, 문화, 환경을 대표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도의 돌문화는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인공적인 요소는 농촌마을의 전통적인 경관형성과 더불어 역사문화와 생활문화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는 마을만들기 열풍으로, '우리문화 역사를 만들기', '농촌테마마을 조성', '관이나 민간 주도의 다양한 마을답사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제주도 농촌마을의 특성을 반영하고 표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 농촌마을의 다양하고 독특한 돌문화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 또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도 마을의 돌문화 중 역사 및 생활관련요소의 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주도 돌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고 많은 연구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성보(2007)는 제주도 돌담이나 발담의 가치를 경관자원적인 측면에서 경관보

\* 정회원, 제주산업정보대학 건축디자인과 전임강사

1) 이왕기, "문화유산을 활용한 외암마을 만들기", 서귀포문화 제8호, 서귀포문화원, 2004, p.58.

2) 이왕기, 앞 책, 서귀포문화원, 2004, p.60.

전직불제의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영(2006)은 제주 전통돌담을 쓰임새에 따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어업, 농축산, 통신, 신앙, 전통의식, 오락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40여 가지의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놓고 있으며, 돌담이 가지는 공익적 경제가치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상영(2007)에서는 돌담을 받담, 산담, 축담, 울렛담, 기타(갯담 등)으로 구분한 뒤, 돌담의 기능을 농촌경관 제공, 교육체험 휴양처, 농경과 생활 등 전통문화 계승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용복(2006)은 제주 받담에 주목하여, 돌담의 현황(돌담의 길이 및 훼손율)을 지역별로 파악하고 있다. 김종석(1998)은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문화를 생활용구, 방어시설,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용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은선(1999)은 제주도의 방사탑의 현지 유형과 분포도 작성을 중심으로 조형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강만익(2001)은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갯성에 대한 위치와 형태 파악 등을 통하여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하순애(2003)는 제주도 내의 신당에 대한 분포현황과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특히 신당의 종류와 형태를 분류하고 있다. 고광민(2003, 2006a, 2006b)은 역사,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제주도의 돌문화를 다양하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생활문화사적인 면에서 제주도 돌문화 연구의 많은 연구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이러한 연구에서는 제주도 돌문화에 대한 연구의 대상이나 범위가 특정한 돌문화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제주도 전체를 그 범위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 또는 마을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로 구분하여 돌문화 특성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건축학에서는 제주도 돌문화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건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돌문화 요소에 대한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개념 또한 정립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제주도 마을에 대한 연구에서도 주된 물리적인 연구 대상이 가옥이나 공간구조 등에 한정된 것이어서 마을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그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제주도 마을에 있는 다양한 돌문화 관련요소 중 인공적인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돌문화 요소를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연구문헌을 바탕으로 돌문화 요소를 선정하고, 현장답사와 사진촬영 및 일부 실측을 실시하여 돌문화 요소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였다.

## 2. 제주도 마을의 입지별 분류

제주도를 지리적 환경에 따라 구분하면 해안지대와 산간지대, 그 사이에 있는 중산간지대로 구분하며, 이에 따

라 마을도 해안마을, 중산간마을, 산간마을로 구분한다.

그러나 산간마을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중산간마을과 제반환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중산간마을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주의 마을을 해안과 중산간마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1 해발고도에 따른 분류

해안마을은 해안선 가까이를 돌아가는 일주도로로 연변부에 발달한 마을이며, 중산간마을은 해발 100고지에서 200고지 사이의 구릉평야에 발달한 농촌형 마을로서 주민의 생업은 주로 농업이고, 부업으로 축산을 병행하고 있다. 산간마을은 300고지 이상의 준평원 초원지대에 발달한 산촌형 마을이다.<sup>3)</sup> 현재 제주도 마을의 분포를 보면 200여 개의 행정단위 중 약 60%가 해안마을(해발 100m 이하)을 형성하고 있으며, 30%가 중산간마을(해발 100~200m), 나머지 10%가 산간마을(해발 200m 이상)에 각각 분포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제주도의 마을은 해발 200m 이하에 90%가 입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용수사정이 좋은 곳에 취락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거주지로 이용해왔음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제주도의 경우 해안에 용천과 상시천이 분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작지의 분포마저 겹쳐있는 까닭에 마을입지에서 치우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sup>5)</sup>

해안마을은 해안선 가까이에 있는 일주도로에 접하여 발달한 마을로서, 지리적으로 전면에 바다와 면해 있고 배후지에는 경작지가 위치해 있어서, 마을 주민들의 생업은 반농반어가 주를 이룬다. 중산간마을은 마을의 터전은 경작지와 목초지 그리고 산림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생업은 반농반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2.2 해안선에 따른 분류

제주도 마을을 구분할 때 해안선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도 마을의 내륙도를 살펴보면 제주도 전 마을의 48%가 해안에서 2km 이내의 범위에 분포하고 4km까지 하면 73%가 분포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해발고도가 100m 이하인 해안마을은 해안선에서 내륙까지 4km 이내의 범위에 거의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라산에서 해안까지 경사가 완만한 경우에 해발고도가 낮아도 마을의 터전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산간마을로 인식되는 경우(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해발 70m)도 있다. 따라서 해발고도와 해안선에 의한 분류가 서로 상이한 마을이 존재하므로 마을을 분류할 때 서로 보완적인 의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1980, p.16.

4) 제주도, 제주도지(상권), 1982, p.627.

5) 제주도, 제주도지-제1권, 2006. 5, p.834.

6) 제주도, 제주도지(제1권), 1993, p.489~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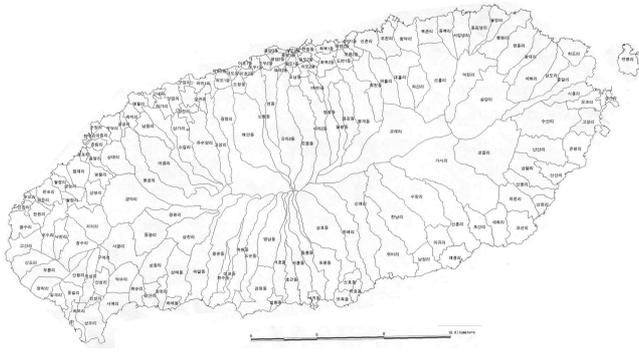


그림 1. 제주도 마을(법정동) 현황

\* 해안선에 면해서 환상으로 배치된 마을이 해안마을이며, 해안마을 위로 분포되어 있는 마을이 중산간마을이다.

인근 또는 마을의 주도로에 비석이 배치되었으며, 중산간 마을에서는 마을의 입구나 마을 내 주요 지점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마을이 비석을 마을의 중심이나 마을회관 울타리 내에 모아 놓고 있다.



사진 1. 해안마을-제주시 화북동 비석거리



사진 2. 중산간마을-한경면 조수리 비석거리

표 1. 마을입지의 고도별 구성 (단위 : m)

행정시	동, 읍, 면	100 이하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이상	합계
제주	동	7	1		1			9
	한경	11	2					13
	한림	10	2	1				13
	애월	15	6	2				23
	조천	5	4			1		10
	구좌	12	1	1				14
서귀포	동	12	10					22
	대정	12						12
	안덕	4	4	1	2		1	12
	남원	5	4					9
	표선	5	3					8
	성산	11						11
합계 (%)		109 (69.9)	37 (23.7)	5 (3.2)	3 (1.9)	1 (0.7)	1 (0.7)	156 (100)

\*지도 분석 결과이므로 행정구역과 차이가 있음.  
\*\*출처 : 제주도, 제주도지-제1권, 2006. 5, p.835.

### 3. 제주도 마을의 돌문화 요소

#### 3.1 역사문화요소

##### (1) 비석과 비석거리

제주도 내에는 역사나 설촌연대가 오랜 마을마다 마을 중심지나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는 비석거리가 있다. 이는 마을과 관련된 인물이나 공동의 치적을 기념하는 비석들을 모아 놓은 곳이다.<sup>7)</sup> 현재 화북비석거리와 조천비석거리는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내 또는 마을의 중심지에 비석을 모아놓고 보존하고 있다. 비석은 종류나 형태가 마을이나 지역 그리고 시대마다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제주도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이 되고 있다. 비석과 비석거리는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제주도 마을의 역사문화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과거 해안마을 특히 포구마을에서는 마을의 입구, 포구

##### (2) 신당

당 혹은 신당이란 자연마을 단위로 존재하는 민간신앙의 성소인데, 그 성소에 좌정한 신을 당신(마을수호신)이라 일컫는다.<sup>8)</sup> 현재에도 도심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 한 곳 이상의 당이 있으며, 한 마을에 서너 곳 혹은 10여 곳의 당이 있기도 하다.<sup>9)</sup> 제주도의 신당은 본향당, 일똥당, 여드렛당, 해신당, 산신당 등으로 나누어진다. 신당은 다양한 장소에 위치해 있으며, 구름형(동산형), 전담형, 천변형, 해변형, 수림형(잡목널쿨형), 궤형(암굴형) 등의 6가지가 있다.<sup>10)</sup>

1만8천 신들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주도에는 188개 행정동·리에 554개의 자연마을이 존재하고 있으며, 신당은 마을마다 산재해 있다. 농촌개발과 도시화 등으로 방치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신당이 많으며, 정확한 신당의 수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약 300여개 정도로 추정되는 신당 중 현재 송당본향당, 세미하로산당, 와홀본향당, 수산본향당, 월평다락굿당 등 5개 신당이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향후 제주도 내의 신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신당 분포도 및 활용실태, 실측도면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문화자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신당은 현재 신앙·언어·예술분야의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되어 있다.

해안마을의 경우, 당이 해변에 위치할 때는 돌로 담을 쌓아 영역을 형성하며, 일반적으로 고목 대신에 제단이나 신석이 있다. 중산간마을의 경우 당은 돌로 담을 쌓아 영역을 형성하거나 자연지형을 이용하며, 제단과 신석이외에 수목(고목, 잡목널쿨)이나 신성시 하는 암반이 있는 특징을 보인다. 해안마을에서 당이 마을 내에 있거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중산간마을과 유사한 형태가 많다. 신당을 돌담으로 쌓아 영역을 형성할 때,

8)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p.106.  
9)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앞 책, 2003, p.133.  
10)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앞 책, 2003, p.137.

7) 김종석,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문화, 제주대석사학위논문, 1998, p.116.

돌담의 높이, 면적 그리고 형태는 마을마다 지리적 입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 3. 해안마을-구좌읍  
김녕리 서문하르방당



사진 4. 중산간마을-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본향당

또 마을제에 임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제주지역의 강한 민간신앙적 정서, 즉 마을신에 대한 집단적 종교 심리를 드러내는 한 표징이라 하겠다.<sup>14)</sup> 포제단은 많은 수가 원래의 자리에서 이동 및 변형된 경우가 많다. 제주도 마을의 공동체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포제단은 실패과악과 더불어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할 중요한 전통문화요소이며, 포제는 신앙·언어·예술분야의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되었다. 포제단은 해안마을이나 중산간마을에서 일반적으로 마을 안이나 외곽지의 동산 위에 위치하며, 돌담으로 영역을 형성하고 제단을 설치하고, 마을마다 돌담의 형태나 면적에서 차이가 난다.

표 2. 제주도의 신당

	동·리 수	신당 수	신당 수/마을 수
제주시	19	37	1.95
서귀포시	12	55	4.58
구좌읍	12	37	3.08
애월읍	26	35	1.35
조천읍	12	32	2.67
한림읍	12	18	1.5
우도면	4	10	2.5
한경면	15	14	0.93
남원읍	17	22	1.29
대정읍	23	16	0.70
성산읍	14	34	2.43
안덕면	12	19	1.58
표선면	10	17	1.7
합계	188	346	1.84

\*출처 :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p.159에서 제작성.

### (3) 포제단

포제단은 포제(마을제)를 지내는 제단으로서, 마을 전체 혹은 대부분의 안녕과 복리를 위하여 남성들의 주관 하에 유교식 제법으로 지내는 의례를 말한다.<sup>11)</sup> 포제단은 마을제단, 포켓동산이라고도 불리며, 대개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특히 동산 위에 있는 곳이 많다.<sup>12)</sup> 제단은 제물을 진설하는 상석(제단) 수를 기준으로, 1개 단형, 2개 단형, 3개 이상 단형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단의 형태는 첫째, 돌담으로 장방형의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장방형의 반석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 둘째, 반월형으로 병풍모양의 돌담을 두르고 그 안에 장방형의 반석 제단을 설치해 놓은 것, 셋째, 위 두 가지의 복합형으로 3가지가 있다.<sup>13)</sup>

현재 제주도 내 150여 개 마을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을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미신타파라는 명목으로 일부 중단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에 거의 복원됐다. 1990년대 이후 각종 마을제가 적극적으로 복원되는 현상,



사진 5. 해안마을-제주시  
도두동 포제단



사진 6. 중산간마을-애월읍  
남읍리 포제단

### (4) 방사탑

방사탑은 담과 거옥대라고도 불리며, 풍수지리적으로 허하거나 약하여 굿은 것이 들어온다거나, 불길한 징조가 비친다는 곳에 집단의 생존과 관련된 가축, 인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sup>15)</sup> 형태는 원뿔형, 사다리꼴, 네모꼴형 등이고, 높이 120~424cm, 밑둘레 270~500cm로 각양각색이다.<sup>16)</sup> 방사탑은 개인의 창작품이 아닌 마을 공동의 작업에 의해 형성된 가식 없고 투박한 안정감이 있는 조형물로서, 마을의 안녕과 평화의 기능으로 세워진 공동체문화의 상징적인 조형물이다.<sup>17)</sup>

일반적으로 마을 입구에 세워지는 방사탑은 건축적인 매력과 환경조각적인 매력이 있는 제주도민의 집단생존과 관련된 자율적 의지에서 만든 미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제주도 내의 방사탑은 총 46개(27개 마을)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중 문화재로 지정된 방사탑은 17개(6개 마을에 분포)이며, 비지정 문화재는 29개(21개 마을에 분포)에 이르고 있다.<sup>18)</sup> 신앙·언어·예술분야의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된 방사탑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마을에 적으면 1~2개, 많으면 4~5개가 있는 경우도 있다.

방사탑은 간혹 중산간마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안마을에 위치하며, 마을이 해안에 형성되어 방사탑이 해안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는 해안에서 나오는

14)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앞 책, 2003, p.243.

15) 강창연, "방사용 탑", 제주도사연구, 제주도사연구회, 1995, p.164.

16) 김봉옥, "제주의 돌문화", 제주문화 제5호, 제주문화원, 1999, p.151.

17) 정은선,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에 관한 연구, 제주대석사학위논문, 1999, p.10.

18) 이윤형, 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2006, p.246~247.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상징, 2008, p.460.

12) 제주도, 제주의 민속V, 1998, p.64.

13) 제주도, 앞 책, 1998, p.64~65.

둥근돌로 쌓았다. 반면에 마을이 해안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형성된 경우, 방사탑은 밭의 중간이나 밭과 밭 사이에 위치하며, 밭에서 나오는 돌로 쌓는다. 따라서 방사탑은 위치하는 곳에 따라 돌의 종류나 크기에 따른 형태나 규모의 차이가 나타난다. 방사탑의 상부에는 새나 새의 부리모양, 그와 유사한 돌 그리고 사람모양의 석상을 세우는데, 구부러진 방향이나 바라보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바다 쪽을 향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표 3. 방사탑(제주도 민속자료)

문화재명	소재지	규격 (cm)		탑 상단에 놓인 석상
		높이	상단 (*:하단)	
몰래물1호	제주시 도두2동	402	*443	새 형상 긴돌
몰래물2호	"	424~250	180	
골앗마을1호	제주시 이호2동	416~330	150	긴돌
골앗마을2호	"	295~355	254	길쭉한 돌3개
골앗마을3호	"	280~310	226	길쭉한 괴석
골앗마을4호	"	150~193	257	길쭉한 괴석
골앗마을5호	"	170~295	160	
용수리1호	한경면 용수리	280~370	260	새 모양 석상
용수리2호	"	310	280	새부리 석상
신흥리1호	조천읍 신흥리	245	*370	
신흥리2호	"	180~250	410	길쭉한 돌
무릉리1호	대정읍 무릉1리	220	340	남자형태석상
무릉리2호	"	170	390	
무릉리3호	"	150	240	
무릉리4호	"	185	210	
인성리1호	대정읍 인성리		*210	사람형태석상
인성리2호	"	225	170	사람얼굴석상

\*출처 : <http://culture.jeju.go.kr/contents>



사진 7. 해안마을-제주시 내도동 방사탑



사진 8. 해안마을-대정읍 무릉1리 방사탑

### (5) 25봉수와 38연대

조선시대 제주의 행정구역체제는 1목2현(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이었으며, 제주목에는 제주읍성, 정의현에는 정의현성, 대정현에는 대정현성을 축조하여, 방어와 행정성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정조연간에 편찬된 「제주읍지」에 보면 25봉수, 38연대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3성·9진·25봉수·38연대라는 독특한 제주도의 방어체계가 정비된 것이다. 봉수는 당시 제주목 소속이 10개소, 정의현 10개소, 대정현 5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연대는 제주목 18개소, 정의현 11개소, 대정현 9개소로 38개소가 있었다. 봉수는 해안변의 오름 정상에 설치되었으며, 연대는 해안에 돌로 쌓아 외부 침입

세력에 대한 관측소 및 요새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봉수는 현재 원형이 훼손되거나 거의 멸실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오소포연대, 서림연대 등 23개의 연대는 문화재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훼손되거나 멸실된 실정이다. 현재 봉수와 연대는 역사분야의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형의 고증과 보존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해안변에 설치되었던 연대는 방형으로, 위로 좁아지는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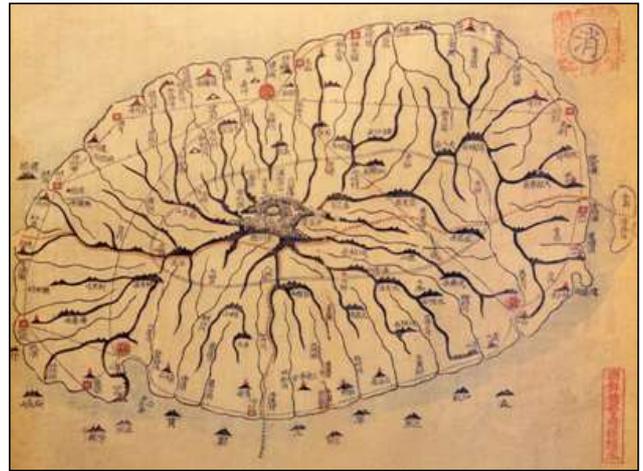


그림 2. 조선시대 제주도의 봉수 및 연대 (김정호, 「대동여지도」, 1861년)



사진 9. 해안마을-애월읍 신읍리 남두연대



사진 10. 해안마을-대정읍 일과리 서림연대

### (6) 환해장성

제주 해안선의 총길이 267km 중 환해장성의 길이는 약 120km 정도로서, 평균 규모는 높이 3m, 너비 2m 정도이다. 주요부분은 성의 너비가 4m에 이르기도 하고, 겹담을 쌓은 곳도 있다. 환해장성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10개 지역(제주시 화북(곤홀, 별도), 삼양, 애월, 북촌, 동북, 행원, 한동, 온평, 신산)이며, 나머지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모나 실제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안도로 개설 등 무분별한 개발이나 건축물, 양어장 시설 설치 그리고 관광객들이 바닷가에 돌담을 쌓으면서 원형을 훼손하고 있다. 환해장성은 제주도의 역사와 자연,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sup>19)</sup>

역사분야의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된 환해장성은 그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환해장성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며, 훼손된 구간의 복원 시 원형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

환해장성은 해안을 따라 축성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안에서 나는 둥근돌로 쌓았으며, 지형의 차이에 따라 돌담의 높이나 폭 등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11. 해안마을-애월읍 애월리 환해장성



사진 12. 해안마을-구좌읍 행원리 환해장성

(7) 산담

제주도 묘의 특색은 돌담으로 네모나게 쌓는 ‘산담’ 형태라는 점이다. 이원진의 「탐라지」 풍속에 따르면, “치상(治喪)은 백일에 대략 마치고 밭머리를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간혹 3년 상을 지내는 사람도 있다. 풍속에 풍수지리와 점치는 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또 불교식 장례법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1650년대의 기록으로, 당시만 하여도 경작지에 분묘를 많이 만들었다. 그 후 풍수지리법이 보급되면서 산야에 분묘를 많이 만들면서 산담을 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다. 첫째는 산화(山火)나 방목한 우마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 분묘끼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자는 것이다.<sup>20)</sup>

산담은 타원형과 장방형이 있으며, 후자가 주를 이룬다. 장방형 산담은 사다리꼴로서, 정면과 후면 길이의 비율은 약 1 : 0.8 정도가 된다. 원형의 산담은 돌을 외담쌓기로 하며, 장방형의 산담은 겹담쌓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담에는 동자석, 인석, 망주석 등을 세우는데, 그 규모나 형태가 시대별로 다양하여 제주도의 독특한 묘지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산담은 밭의 중간이나 마을의 내·외 그리고 목장이나 오름의 중간이나 정상에 놓이는 등 그 위치가 다양하여 또 하나의 제주도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문화자원화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 및 생활분야의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되었다. 산담의 형태는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간의 차이점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돌담을 둘러 영역을 형성하고 돌담을 쌓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산담에 쓰이는 돌은 방형의 돌을 겹으로 가지런히 쌓는 경우와 비교적 작은 돌을 여러 겹으로 쌓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타원형으로 산담을 쌓을 경우는 외

담<sup>21)</sup>으로 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진 13. 장방형 산담-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변



사진 14. 타원형 산담-애월읍 신업리 해안도로변



사진 15. 비석-구좌읍 송당리



사진 16. 동자석-구좌읍 송당리



사진 17. 문인석-구좌읍 송당리

(8) 잣성

잣성이란 중산간 지대에서 방목중인 말들이 해안의 농경지로 내려와 입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의 중산간 지대에 환상으로 쌓았던 석성으로, ‘잣’ 또는 ‘잣담’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안지대의 농경지와 중산간 지대의 방목지와외의 경계부근에 하잣성 그리고 중산간 지대의 방목지와 산간지대의 삼림지와외의 경계부근에 상잣성이 겹담으로 축성되었다. 중잣성은 하잣성과 상잣성 사이의 공간을 이등분하는 잣성이다.<sup>22)</sup> 현재 잣성은 골프장건설과 중산간지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원형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며, 실태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 돌문화 특히 목장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원으로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도의 독특한 목장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역사분야의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되었다.



사진 18. 중산간마을-애월읍 어음리 하잣성



사진 19. 중산간마을-표선면 가시리 중잣성

19) 이윤형, 고평민, 앞 책, 2006, p.100~101.

20) 김봉옥, 앞 책, 1999, p.148.

21) 외담쌓기는 비교적 큰 돌을 한 줄로 쌓는 것이며, 겹담쌓기는 비교적 큰 돌을 양쪽에 쌓고 가운데 부분은 잔돌로 채우는 방식이다.

22)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 연구, 제주대석사학위논문, 2001, p.11.

(9)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의 특성

제주도 농촌마을의 돌문화 중 역사문화요소에서 나타나고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으며,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 간에 일부 유사성과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역사문화요소-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

역사문화요소	해안마을	중산간마을
비석과 비석거리	위치 : 마을 입구, 포구 인근, 마을 주도로 형태 : 형태나 크기가 다양함	위치 : 마을 입구, 마을 내 주요 지점 형태 : 형태나 크기가 다양함
신당	위치 : 해안, 마을 내, 마을 인근 형태 : 돌담+제단+신석+(수목)	위치 : 마을 내 또는 마을 인근 형태 : 돌담+제단+(신석/암반)+수목
포제단	위치 : 마을 내 또는 마을 외곽지 형태 : 돌담+제단	동산 위
방사탑	위치 : 해안이나 밭의 중간이나 밭과 밭 사이 형태 : 원뿔형, 사다리꼴, 네모꼴	거의 없음
25봉수	위치 : 해안 인근의 산 정상 형태 : 훼손으로 불명	없음
38연대	위치 : 해안변 지대가 높은 곳 형태 : 사다리꼴	없음
환해장성	위치 : 해안 변 형태 : 높이 - 3m 정도 너비 - 2m 정도	없음
산담	위치 : 밭 안, 마을 내/외, 오름(산)의 중간이나 정상 형태 : 원형(외담), 방형(겹담)	위치 : 밭 안, 마을 내/외, 목장이나 오름(산)의 중간이나 정상 형태 : 원형(외담), 방형(겹담)
잣성	위치 : 해안과 중산간지대 사이 형태 : 겹담	위치 : 중산간과 산간지대 사이 형태 : 겹담

3.2 생활문화요소

(1) 제주초가 및 가옥 내 시설물

제주도의 기후는 바람이 그 특성을 대표하며, 제주초가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표현되었다. 대지가 도로나 지형보다 낮게 선택된 점, 곡선 형태의 울레, 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가옥을 별동으로 배치한 점, 높은 돌담 울타리와 상대적으로 외부 노출 표면적이 작은 겹집평면, 기단과 마루높이가 낮은 것, 지붕을 모입지붕으로 하여 물매를 낮게 하고 누룽줄을 격자로 엮은 것, 지붕 최상부의 용마름이 없는 것, 처마깊이가 얇은 것과 그에 덧달린 풍채, 목골구조, 외부로 쌓은 석조 덧벽, 창호를 보호하기 위한 판장문 등은 바람에 적응하기 위하여 선택된 지혜다.<sup>23)</sup>

제주도 농촌문화를 대표하는 제주 초가는 고유한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자원으로서, 제주인의 생활철학이 배어 있는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현재 일부 초가가 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나, 각 지역별, 마을별로 가옥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별, 마을별 특성을 보여주는 초가의 조사 및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초가는 제주 문화 10대 상징으로 선정되어 건축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초가의 덧벽(축담)은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쌓기 때문에 해안마을의 해안에 접한 가옥은 덧벽의 돌이 발담이나 집담의 돌과 크기가 유사한 돌 또는 해안의 등근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산간마을의 가옥에서는 일반적으로 발담이나 집담의 돌과 크기나 형태가 유사한 돌 또는 비교적 크기가 작은 잔돌을 덧벽으로 쌓는 경우가 많다.

제주초가의 대지 내 돌로 된 시설물은, 통시, 눌굽, 장항굽, 잇돌, 물팡돌, 정주석 등이 있다. 눌굽은 탈곡하고 난 후의 낱가리를 쌓을 때, 흙바닥 위에 까는 돌단을 말하며, 장항굽은 장독대를 말한다. 잇돌은 가옥의 정면 처마 밑에 까는 돌이며, 물팡돌은 물허벅을 내려놓는 돌로 된 단을 말하며, 정지 입구 정면에 설치한다. 정주석은 정낭을 끼우는 시설로서 울레의 입구에 설치한다.



사진 20. 해안마을-제주시 삼양동 강운봉가옥 안거리



사진 21. 중산간마을-애월읍 하가리 872번지 안거리



사진 22. 중산간마을-애월읍 하가리 872번지 눌굽



사진 23. 중산간마을-애월읍 하가리 872번지 물팡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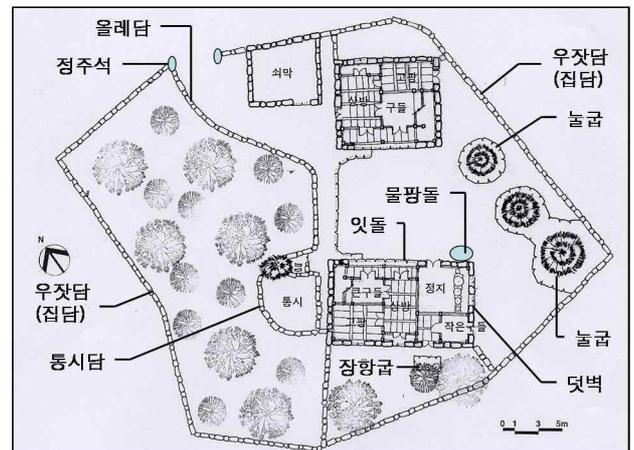


그림 3. 제주초가 및 가옥 내 돌관련 시설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872번지)

\*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북제주군의 문화유적(II), 1998, p.276 도면을 참고로 제작됨

23) 제주특별자치도, 앞 책, 2008, p.312.

(2) 돌담

제주 돌담은 제주도민들이 바람과 땅을 돌로 다스려온 생활문화의 유산으로 생산, 안전, 조화, 평화, 경계를 나타내주고 있으며<sup>24)</sup>, 돌담의 종류에는 발담, 잣성, 산담, 켓담, 성담, 원담, 축담, 울렛담, 우잣담, 잣길(잣담) 등이 있다. 잣성은 제주 중산간 지역의 목장 경계에 돌을 쌓아 우마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쌓은 담이며, 산담은 묘의 주위에 쌓아 우마의 출입이나 불을 막기 위한 담이다. 켓담은 마을과 마을의 경계에 쌓은 담이며, 성담은 4.3때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마을 내에 쌓은 담이다. 원담은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데 사용했던 해안에 쌓았던 담이다. 축담은 집의 외벽에 덧대어 쌓은 돌담벽을 말하며, 울렛담은 대지 내부로 들어오는 좁은 골목길인 울레의 양 옆에 쌓은 담이고, 우잣담은 집터의 경계에 쌓아서 바람이나 우마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쌓은 담이다. 잣길(잣담)은 경작지나 주거지의 텃밭에서 나온 작은 돌을 경계선에 돌담과 같은 형태로 쌓아 놓은 것이다. 이 잣담은 위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으며, 돌담의 외곽에는 비교적 큰돌을 쌓고, 내부에는 잔돌로 채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제주 돌담을 대표하는 발담의 기원은 고려 고종 21년부터 27년까지 재임했던 김구 제주 판관이 밭의 경계가 없어 힘 있는 자들이 민중의 농토를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sup>25)</sup> 최근 제주 돌담은 문화적 가치로도 상당히 높게 인정받아 문화관광부에서는 제주 돌담을 사회 및 생활상징으로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왔지만 돌담이 제주의 상징, 현무암 돌담 그 자체가 빚어내는 경관의 아름다움을 이유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sup>26)</sup>

제주 돌담은 이농 및 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에 공동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어 제주도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역자원이자 전통문화유산인 돌담을 보전하여 미적경관제공기능, 전통문화계승기능, 체험교육장기능은 물론 제주도의 관광상품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sup>27)</sup>

제주 돌담은 자연분야의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되었다. 돌담은 용도별, 기능별, 지역별로 돌의 크기나 쌓기 방식 그리고 돌담의 높이 등이 다양하다. 따라서 돌담의 용도

나 기능별 특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객관화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지역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진 24. 해안마을-구좌읍 평대리 발담



사진 25. 중산간마을-애월읍 하가리 발담



사진 26. 해안마을-구좌읍 평대리 집담(우잣담)



사진 27. 중산간마을-한림읍 동명리 집담(우잣담)



사진 28. 해안마을-애월읍 신엄리 긴올레(S형)



사진 29. 중산간마을-한림읍 명월리 짧은올레(I형)



사진 30. 중산간마을-조천읍 선홀리 4.3성



사진 31. 중산간마을-애월읍 하가리 잣담(잣길)

(3) 통시

제주도 민가에서 변소는 통시, 뚝통이라고 부른다. 안거리(안채)의 좌측이나 우측에 설치하며, 반드시 정지의 반대편에 위치한다. 통시는 약 10여 평 정도로서 땅을 1m 정도의 깊이로 파서 만들며, 울타리는 돌담으로 쌓는다. 통시는 제주 민가의 기본적인 시설로서 그 형태가 독특하고 다양하다. 제주의 주거문화 특성을 나타내는 통시는 사회 및 생활분야의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통시의 울타리는 외담으로 쌓으며, 돼지막 또한 돌을 쌓아 지붕을 덮는다. 대변을 보는 공간은 돌담으로 벽만 쌓는 경우와 돌담을 쌓고 그 위에 지붕을 덮는 경우도 있다.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 간의 구조나 형태의 특별한 차이는 없으며, 단지 가옥별 통시 면적의 차

24) 이상영, 제주 전통돌담의 유지보전에 관한 의식조사, 농촌계획 제13권제1호, 2007, p.34.  
 25) 이상영, 앞 논문, 농촌계획 제13권제1호, 2007, p.34.  
 26) 최용복, 제주도 농촌지역 내 돌담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농촌계획 제12권제3호, 2006, p.59.  
 27) 최근 문화재청에서 전통 돌담을 명승지나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최근에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마을 내 돌담을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

이나 대변 공간에서 구조상의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진 32. 중산간마을-표선면 성읍1리 통시



사진 33. 중산간마을-애월읍 하가리 872번지 통시

#### (4) 폭낭 및 편상

제주의 마을에는 정자가 없고 대신 대가 만들어진다. 나무 주위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돌로 둥그렇게 단을 쌓는데, 이것을 제주에서는 편상, 뗏돌이라고 부른다. 정자나무는 팽나무(폭낭)이 가장 많은데, 이것은 폭낭이 잘 자라고 습기에 강할 뿐 아니라, 제주의 드센 비바람에 날려서 수형이 대단히 곱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이다.<sup>28)</sup>

폭낭과 편상은 제주의 마을에서 마을의 입구나 중앙, 마을 안길과 샛길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올레의 입구 등 사람이 왕래가 빈번한 곳에 설치된다. 이곳은 마을사람들의 공동 쉼터나 토론의 장 역할을 하며, 마을 사람 상호간에 마을의 대소사나 마을사람들의 안녕을 서로 전달하는 등 마을공동체의식 형성의 중요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 마을의 전통적인 공간구조가 파괴되고 변화했으나, 폭낭과 편상은 아직도 제주도 마을의 전통적인 경관을 유지시키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마을회관의 건립 등에 따른 기능의 축소로 지금은 쉼터 등의 기능이 있을 뿐이다. 폭낭(팽나무)은 자연분야의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되었다.

폭낭은 해안마을의 경우 바람에 의한 영향으로 풍향수(한쪽으로 치우쳐서 자란 나무)가 된 경우가 많으며, 중산간마을은 비교적 바람의 영향을 덜 받아 크고 수령이 오래된 고목이 많다. 편상은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 간의 특별한 차이는 없으며, 단지 돌을 쌓는 단의 높이나 형태가 마을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 34. 해안마을-애월읍 중엄리 폭낭 및 편상



사진 35. 중산간마을-애월읍 상가리 폭낭 및 편상

#### (5) 용천수와 봉천수

바닷가에서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것을 용천수라 하고, 중산간마을에 물이 고일만한 곳에 빗물을 고이게 하여 생활용수로 이용한 것을 봉천수라 한다. 용천수는 바닷가 바위틈에서 저절로 흘러내리므로 그 상류부분은 식용수로 쓰고, 그 아래는 채소류를 씻는 물로 이용하고, 하류의 물은 빨래용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용도별 구분을 짓기 위하여 돌담 혹은 시멘트로 구획을 지어 놓은 곳도 많다. 또는 용천수가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마을에서는 바가지로 물을 떠 올려 사용하도록 만든 마을도 있는데, 이를 '통물'이라 한다. 반면 봉천수는 한 마을에 여러 곳이 있는데, 용도에 따라 그 이름도 달리되어 있다. 가령 식용수로 사용하도록 파 놓은 곳은 '구렁'이라 하고, 마소를 먹이거나 빨래를 하는 물은 '못'이라 하여 구분한다.<sup>29)</sup>

선사시대 이래로 제주도 해안마을은 용천수가 나는 곳을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용수확보가 용이했으나, 중산간마을은 물이 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식수는 해안마을의 용천수를 이용하였고, 봉천수는 마소의 먹이나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천수와 봉천수는 제주도 농촌의 고유한 문화이자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자연분야의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되었다. 해안마을의 용천수는 한 마을에 여러 곳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물통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형태는 돌담을 높게 쌓아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중산간마을의 봉천수는 식수보다는 생활용수나 우마의 물먹이용 또는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남녀의 특별한 구분은 없다. 봉천수는 암반지대이거나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진흙질의 토양으로 구성된 곳에 큰 구덩이를 파고 주위에 돌담을 쌓아 영역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 36. 해안마을-조천읍 조천리 물통(용천수)



사진 37. 중산간마을-애월읍 상가리 물통(봉천수)

#### (6) 원(개)

해변의 포구에 돌담으로 둘러막아 놓고 밀물따라 물려든 고기떼들을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고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돌그물격인 것을 '원' 또는 '개'라고 부른다. 조천읍 조천리에서 구좌읍 하도리까지는 '개',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원'이라고 부른다. 제주도에겐 모두 342개

28) 김홍식, 김석윤, 신석하, 제주의 민속IV-주생활, 제주도, 1996, p.439~440.

29) 제주특별자치도, 앞 책, 2008, p.150~151.

의 '원'이 조사되었으며, 원은 천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공적인 원이 훨씬 많다. 원의 돌담은 바다밭을 공유하고 있는 마을사람 공동창작의 석조물이다. 원의 돌담 모양은 크게 직선형과 곡선형 두 가지가 있으며, 돌담의 단면은 직삼각형과 직사각형이 있다.<sup>30)</sup> 원은 해안마을에 따라 그 수가 다르며, 간혹 원을 설치하지 않은 마을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 마을에 4~5개 정도 설치하며, 많을 경우 한 마을에 20여개 정도의 원(개)을 설치한 해안마을도 있다. 원은 해안마을 사람들의 생활문화 및 공동체의 상징으로서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자원이다. 그러나 경제여건의 변화나 개발 등에 의해 현재는 많은 수가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존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원은 사회 및 생활분야의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되었다.

표 5. 제주도의 원(개)

	동 · 리 수	원(개) 수	원(개) 수/마을 수
제주시	7	41	5.86
서귀포시	7	18	2.57
구좌읍	7	69	9.86
애월읍	6	27	4.50
조천읍	5	26	5.20
한림읍	9	42	4.67
우도면	8	25	3.13
한경면	7	32	4.57
남원읍	7	13	1.86
대정읍	4	26	6.50
성산읍	5	10	2.00
안덕면	2	6	3.00
표선면	3	7	2.33
합계	77	342	4.44

\* 출처 : 고헌민, 제주도 포구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p.341~352에서 재정리.



사진 38. 큰원 (원경) - 애월읍 애월리



사진 39. 큰원 (근경) - 애월읍 애월리

### (7) 연자매

연자매는 '몰구레', '몰방아'라고도 부르는데, '몰구레'는 '몰(馬)'과 '구레(맷돌)', '몰방아'는 '몰'과 '방아'로 이루어진 말이다.<sup>31)</sup> 연자매의 기본 기능은 곡물을 찧고, 뺏고, 장만하는 일이며, 부차적으로 상여용구(喪輿用具)를 보관하기도 한다. 또한 연자매간은 정자대용으로써, 신문, 방

송기사적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마을의 공공사를 협의하기도 하는 마을사람들의 정보교환처로도 활용된다.<sup>32)</sup>

애월읍 하가리 연자매와 신엄리 연자매 2기가 중요민속자료 제32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나, 현재 많은 수의 연자매가 멸실되어 과거 제주도 농촌의 고유한 생활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연자매(몰방아)는 생활사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사회 및 생활분야의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되었다. 연자매는 평면이 단칸 구조로서, 형태는 돌로 외벽을 쌓았고 지붕은 제주초가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연자매는 마을의 규모에 따라 그 수가 각기 다르며, 구조 및 형태에서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 간의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



사진 40. 해안마을-애월읍 신엄리 당거리동네 연자매간



사진 41. 중산간마을-애월읍 하가리 잣동네 연자매간



사진 42. 해안마을-애월읍 신엄리 당거리동네 연자매



사진 43. 중산간마을-애월읍 하가리 잣동네 연자매

### (8) 도대불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식 등대가 도입되기 전 해안가의 산이나 언덕 등에 봉화를 피워 항로표지로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등대건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주도에선 도대불이 있었다. 도대불은 자연석으로 쌓았는데 그 형태는 원뿔형 모양, 계단이 있는 형태, 석등과 같은 형태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도대불의 시설물이나 터가 제주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곳은 1915년에 세워진 조천읍 북촌리의 도대불이며, 1969년에 완성된 구좌읍 하도리의 도대불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이다.<sup>33)</sup>

도대불은 장명등이라고도 부르며, 어민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축조 및 운영되었던 민간등대이다. 현재 도대불은 항만시설 확충이나 해안도로 건설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으며,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들 역시 아무 의미

32) 김영돈, "연자매",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1987, p.51.

33) 전해식, 우리나라 근대기 등대건축에 관한 연구, 배제대석사학위논문, 2005, p.16.

30) 이윤형, 고헌민, 앞 책, 2006, p.177~179.

31) 고헌민, 돌의 민속지, 도서출판 각, 2006, p.48.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어촌의 독특한 향로 표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도대불에 대한 조사 및 연구의 선행과 더불어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도대불은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제주도 어촌마을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이다. 도대불은 마을마다 그 형태나 구조에 있어서 다양하며, 이것은 지역별, 마을별로 돌의 가공 정도나 축조기법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사진 44. 해안마을-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 도대불



사진 45. 해안마을-구좌읍 김녕리 포구 도대불

#### (9)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의 특성

제주도 농촌마을의 돌문화 중 생활문화요소에서 나타나고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으며,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 간에 일부 유사성과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생활문화요소-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

생활문화요소	해안마을	중산간마을
제주초가의 덧벽	위치 : 가옥의 좌측, 우측, 배면 형태 : 발담, 집담과 유사한 돌, 둥근돌	위치 : 가옥의 좌측, 우측, 배면 형태 : 발담, 집담과 유사한 돌, 크기가 작은 잔돌
가옥 내 시설물	대지 내 위치나 형태에서 큰 차이 없음	
돌담	마을 내/외부의 위치나 형태에서 큰 차이 없음 *용도별, 기능별, 지역별로 돌의 크기나 쌓기방식, 높이 등이 다양함	
통시	위치 : 안거리 정지 반대편 형태 : 방형이나 원형의 돌담울타리(외담)	
쪽낭 및 편상	위치 : 마을의 입구나 중앙, 올레의 입구 등 형태 : 원형이나 방형의 돌단 수목 : 풍향수가 많음	위치 : 마을의 입구나 중앙, 올레의 입구 등 형태 : 원형이나 방형의 돌단 수목 : 고목이 많음
용천수	위치 : 해안가 형태 : 돌담을 높게 쌓음 남/녀로 구분함 주용도 : 식수	거의 없음
봉천수	거의 없음	위치 : 마을 내 또는 마을 인근 형태 : (낮은 돌담)+암반이나 진흙질의 구덩이 남/녀 구분 없음 주용도 : 생활용수나 우마의 먹이용
원(개)	위치 : 해안의 포구 형태 : 직선형과 곡선형의 돌담	없음
연자매	제주 초가와 같은 구조와 형태를 하고 있으며, 마을 내 위치나 형태에서 큰 차이 없음 *마을의 크기에 따라 수가 차이가 남	
도대불	위치 : 포구 형태 : 원뿔형, 석등형, 계단이 있는 형 등 다양함	없음

#### 4. 결론

제주의 독특한 문화인 돌문화는 전통문화유산으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주도 마을의 역사문화적인 자원이며 요소이다. 이러한 돌문화 관련 역사 및 생활문화요소는 마을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독특한 지역적 정체성이 사라지면 가치도 함께 사라진다. 제주의 독특한 마을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돌문화는 제주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서 조사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보존의 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이다. 현재 많은 수의 돌문화 관련 요소 및 자원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마을의 공간구성이 파괴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 농촌마을의 다양한 돌문화 중 인공적인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대상으로 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였다. 역사문화적인 요소와 생활문화적인 요소로 나누어 파악한 결과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의 돌문화 특성이 일부 유사성과 차이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지리적인 차이나 생활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역사문화요소 중 비석과 비석거리는 해안마을에서는 마을의 입구나 주도로 또는 포구 인근에 배치되며, 중산간마을에서는 마을의 입구나 주요 지점에 위치한다. 신당은 해안마을의 경우, 해변에 위치할 때는 돌담으로 영역을 형성하며, 일반적으로 고목 대신에 제단이나 신석이 있다. 중산간마을의 경우 당은 돌담으로 영역을 형성하거나 자연지형을 이용하며, 제단과 신석 그리고 수목이나 신성시 하는 암반이 있다. 포제단은 해안마을이나 중산간마을에서 일반적으로 마을 안이나 외곽지의 동산 위에 위치하며, 돌담을 둘러 영역을 형성하고 제단을 설치하고 있다. 방사담은 해안마을에 있는 것으로, 해안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는 둥근돌로 쌓았으며, 반면에 마을이 해안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형성된 경우, 방사담은 밭의 중간이나 밭과 밭 사이에 위치하며, 밭에서 나오는 돌로 쌓는다. 봉수는 현재 원형이 훼손되었으며, 해안변에 설치되었던 연대는 방형으로,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다. 환해장성은 해안을 따라 축성되었으며, 해안에서 나는 둥근돌로 쌓았다. 산담은 밭의 중간, 마을의 내·외 그리고 목장이나 오름의 중간·정상에 놓이는 등 그 위치가 다양하다. 산담의 형태는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 간의 차이점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돌담을 둘러 영역을 형성하고 돌담을 쌓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잣성은 하잣성, 상잣성 그리고 중잣성이 있으며, 겹담으로 축성되었다.

생활문화요소 중 제주초가의 덧벽(축담)은 해안마을의 경우 돌이 발담이나 집담의 돌과 크기가 유사한 돌 또는 해안의 둥근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산간마을의 가옥에서는 발담이나 집담의 돌과 크기나 형태가 유사한

돌 또는 비교적 크기가 작은 잔돌을 덧벽으로 쌓는 경우가 많다. 제주초가의 대지 내 돌로 된 시설물은, 통시, 늘굽, 장항굽, 잇돌, 물광돌, 정주석 등이 있으며,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간의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 돌담은 용도별, 기능별, 지역별로 돌의 크기나 쌓기 방식 그리고 돌담의 높이 등이 다양하다. 통시의 울타리는 외담으로 쌓으며, 돼지막 또한 돌을 쌓아 지붕을 덮는다.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 간의 구조나 형태의 특별한 차이는 없다. 폭낭과 편상은 마을의 입구나 중앙, 마을 안길과 셋길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올레의 입구 등 사람이 왕래가 빈번한 곳에 설치된다. 폭낭은 해안마을의 경우 풍향수가 많으며, 중산간마을은 고목이 많다. 편상은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 간의 특별한 차이는 없으며, 단지 돌을 쌓는 단의 높이나 형태가 마을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해안마을의 용천수는 남·여의 물통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형태는 돌담을 높게 쌓아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있다. 중산간마을의 봉천수는 식수보다는 생활용수나 우마의 물먹이용 또는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하며, 남녀의 구분은 없다. 봉천수는 암반지대나 진흙질로 된 곳에 큰 구덩이를 파고 주위에 낮은 돌담을 쌓고 있다. 원의 돌담 모양은 크게 직선형과 곡선형 두 가지가 있으며, 돌담의 단면은 직삼각형과 직사각형이 있다. 연자매는 평면이 단칸 구조로서, 형태는 돌로 외벽을 쌓았고 지붕은 제주초가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연자매는 마을의 규모에 따라 그 수가 각기 다르며, 구조 및 형태에서 해안마을과 중산간마을 간의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 도대불은 자연적으로 쌓았는데 그 형태는 원뿔형 모양, 계단이 있는 형태, 석등과 같은 형태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존해야 할 대상은 선정하여 문화재 지정 및 전통문화 계승으로 이어져야 하겠으며, 활용해야 할 대상은 선정하여 교육자료 활용, 문화콘텐츠화, 문화관광상품화 하는 등의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함께 마을별 문화유산 보존회 운영이 필요하며, 마을 주민의 역사의식, 문화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관공서나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별 돌문화자원의 지도 작성, 마을답사코스 개발, 마을이나 지역별 문화유산 지킴이 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향후 제주도 농촌마을의 개별적인 돌문화 요소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통해 용도별, 기능별 그리고 마을별,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제주도 돌문화의 전반적인 특성을 밝히는 것이 본인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 참고문헌

1.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 연구, 제주대석사학위논문, 2001.
2. 강창언, “방사용 탑”, 제주도사연구, 제주도사연구회, 1995.
3. 고광민, 돌의 민속지, 도서출판 각, 2006.
4. 고광민, 제주도 포구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5. 고정보, 제주발담의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경관자원(제주발담) 평가시스템 구축과 적용, 농촌계획 제13권제3호, 2007.
6. 김봉옥, “제주의 돌문화”, 제주문화 제5호, 제주문화원, 1999.
7. 김영돈, “연자매”,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1987.
8. 김정호, 대동여지도, 1861.
9. 김종석,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문화, 제주대석사학위논문, 1998.
10. 김홍식, 김석윤, 신석하, 제주의 민속Ⅳ-주생활, 제주도, 1996.
11.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1980.
12.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Ⅱ), 1998.
13. 이상영, 제주 전통돌담의 유지보전에 관한 의식조사, 농촌계획 제13권제1호, 2007.
14. 이왕기, “문화유산을 활용한 외암마을 만들기”, 서귀포문화제8호, 서귀포문화원, 2004.
15. 이윤형, 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2006.
16. 전해식, 우리나라 근대기 등대건축에 관한 연구, 배제대석사학위논문, 2005.
17. 정은선, 제주도의 담과 거육대에 관한 연구, 제주대석사학위논문, 1999.
18. 제주도, 제주도지(상권), 1982.
19. 제주도, 제주도지(제1권), 1993.
20. 제주도, 제주도지-제1권, 2006.
21. 제주도, 제주의 민속Ⅴ, 1998.
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사정, 2008.
23.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24. 최용복, 제주도 농촌지역 내 돌담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농촌계획 제12권제3호, 2006.
25. <http://culture.jeju.go.kr/contents>

(接受 : 2009.01.07)